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절망적인 상황.

길이 있다. **단정적 어조**

희망

⇒ 절망적 상황에서의 희망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반복**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절망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

스스로 봄 길이 되어

따뜻하고 밝은 사랑. 추상의 구체화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좌절하지 않고

⇒ 스스로 절망을 극복하고 타인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절망적 상황의 구체화 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절망적 상황의 구체화 ②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절망적 상황의 구체화 ③, **열거**

⇒ 절망적인 상황

보라 명령어법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길이 끝난 곳, 절망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

길이 되는 사람, 타인을 사랑하는 사람.

스스로 사랑이 되어

봄길

한없이 봄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변형된 수미상관**

끝없이, 좌절하지 않고. 세상을 따뜻하고 밝게 만드는 사람.

⇒ 세상을 밝게 만드는 사람에 대한 예찬



갈 래 : 자유시, 서정시

성 격 : 긍정적, 낭만적, 예찬적

제 재 : 봄 길

주 제 : 세상을 밝고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예찬

특 징 : ① 변형된 수미상관

② 단정적 어조로 화자의 믿음 제시.

③ 동일한 문장 반복으로 운율 형성.

④ ‘사랑’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봄 길’이라는 단어로 구체화.

해 설

평소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시를 많이 쓴 정호승 시인의 시다. 부정적 상황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희망과 사랑을 만들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에 대한 예찬의 내용이다. 이 시에서 ‘길’은 인생 자체이면서 미래와의 소통으로 볼 수 있다. ‘길이 없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것과 같다.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 도리어 ‘스스로 길이 되는 사람’은 절망에 굴하지 않고 희망을 짊어지며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베풀어주는 고마운 사람이다.

‘보라’라는 단어를 통해 시상을 집중시켜 그런 사람을 본받자는 의도가 잠재되어 있다. 현대 사회의 불모성으로 고생하는 소외된 사람들이 절망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자는 의도를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

시인은 ‘길이 끝나는 곳’과 ‘사랑이 끝나는 곳’을 동일시하고 있다. 힘겨운 사회에서 미래가 암담하다고 좌절하지 말고 희망을 찾아가듯이, 사랑의 실패로 좌절하지 말고 새로운 사랑을 키워 가자는 메시지를 온전히 전해주는 마음이 포근해지는 느낌의 시이다.